

# ‘임진전쟁’의 강화 교섭

아라키 가즈노리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 머리말

본 보고는 임진전쟁(1592-98, 「분로쿠·케이초의 역」 「임진·정유왜란」 「만력의 역」 [鄭·李 2008] 후 전개된 일조강화교섭(1598-1607)의 과정을 검토하고자 하는 바이다.

강화교섭에 관하여 많은 선행연구가 축적 되어왔는데, 도요도미정권의 최고권력자 입장에서 이탈하여 에도 바쿠후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강화교섭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한 쟁점이 되고있다. 1607 년 강화를 결정케 한 조선국서가 쓰시마 다이묘 소씨에 의하여 개찬된것이라는 설을 [田代 1983] 제기함으로써 해당기 강화교섭에 대한 도쿄가와 정권의 관여가 저평가되었다. 한편 위서설에 대한 [高橋 1985] 이론이 제기되어 1604 년까지는 소씨가 강화교섭을 주도 하였으나,그후에는 도쿠가와 정권이 주도하였다는 의견 [高橋 1985] 도 제기되었다.그런데 근년 현존 조선국서에 대한 상세한 관찰과 과학적인 분석결과 역시 개찬된것이 증명되고 [田代 2007] , 국서에 첨부된 예조참판의 서계가 개찬된 것이라는것도 논증되었다 [米谷 1995] .

이러한 국서·예조 서계의 개찬은 소씨가 도쿠가와 정권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강과교섭을 추진하였다는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소씨 독자적인 입장에 의거한 교섭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가 도쿠가와 정권의 외교장구의 입장에 의거한 교섭인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당시의 일본정보가 여러 모로 기록되어 있는데,그것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보는것은 위험하다. 정보의 불확실성뿐만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가 혼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한편 선행연구에서는 일본 측 사료로서 《통향일람》 등 편찬물이 중용 되고있는 경향이 있다. 《통향일람》은 바쿠후 다이가쿠노 가미 하야시 아키라가 1853 년에 편찬한 외교사료집이다. 편리한 사료이기는 하나 선행 편찬물에 의거하여 편찬 된것 이므로 수록된 내용을 그대로 믿을수는 없다. 때문에 일차사료나 동시대성이 강한 이차사료에 근거하여 논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보고는 일조간의왕래외교문서인 서계(‘국서’는 장군-조선국왕간의 왕래서계)에 주목하고자 한다.해당기 서계원본중 현존하고 있는것은 조금뿐인데다 개찬된것이다.한편 《조선왕조실록》 《통향일람》 과 쓰시마 한 외교문서집 《조선외교대기》(松浦允任編) 등에 수록된 서계의 록문은 잘 알려져 있는데,그 외 쓰시마 외교문서집 《선린통서》(阿比留恒久編), 쓰시마의 외교승 게이데쓰 겐소

문안집 《仙巢稿別本》 등에 다수의 서계가 수록 되어있다. 해당기 서계는 현재 필자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110 통에 달하며, 쓰시마-조선간왕래서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서계를 이용한 연구는 [米谷 2002] 의 연구뿐인데 기존 서계와 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강화교섭은 서계 왕복으로 끝나는것이 아니고 최전선에서의 구두 전달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흥정인 이상 서계 문면에도 의도적으로 과장 허위가 혼유하므로 초고본·사본 취급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위험성은 있으나 서계를 통시적·망라적으로 분석하여 쓰시마 소씨·조선정부 쌍방 주장의 저류를 형성하는 의도와 논리를 석출할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는 쓰시마-조선간 왕래서계 및 일본 측 일차사료나 《조선왕조실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요도미·도쿠가와 정권 동향, 조선왕조를 둘러싼 국제환경을 고려하면서 강화교섭 과정을 시계열로 확인하여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관여정도 및 쓰시마 소씨의 자율성 정도를 밝히고저 한다.

## 1. 명군주둔기 강화교섭(1598년 10월-1600년 9월)

### (1) 1598년(계축 3·선조 31·만력 26)

도요도미 히데요시가 8월 18일에 사망하자 9월 5일 도요도미정권 다이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마에다 도시이에·우키타 히데이에·모리 데루모토는 일본군 철퇴 전 조선 재진중인 고니시 유키나가·소 요시토시에게 연서를 보냈다. 그 취지는 “가토 기요마사 면전이 아니여도 좋으니 급히 무사(강화)가 되도록 조절하라. 강화에 관하여 조선 왕자가 오면 좋으나 무리하면 조물이라도 좋다. 일본 체면을 지키기 위한것이기 때문에 조물의 다소는 상관없다”라는 것이었다. 시마즈 요시히로·구로다 나가마사 등 조선 재진 중 다이묘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명령이 일시에 보내졌다 [中野 2006]. 그러나 강화교섭은 좌절되고 순천·사천·노량진에서 치열한 전투를 걸쳐 일본군 철퇴가 끝나는것은 11월하순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명장 유정·모국기에 의하여 일본 측에 보내진 인질 49명 중 2명이 해방되면서 부산 '적진' (왜성)으로부터 '왜장' 서계를 가지고왔는데 이 '왜장'은 시마즈 요시히로였다. 서계 내용은 무사히 철퇴한것에 대한 사의를 표명한것으로 이를 가지고 온 사람은 '선주 야스치카'였다. 후세 사서는 '야스치카'를 가케하시 시치타유로 추정하고있다. 가케하시 시치타유는 쓰시마 다이묘 소 요시토시에 종속 되어있는 특권장인이었는데 전시에 고니시 유키나가의 통사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그는 '미포'를 이전처럼 '세사'할것을 청하였다. 전쟁전 조선국왕은 쓰시마 등 통교자에게 미두를 매년 사급하였는데 대일 외교 매뉴얼 《해동제국기》(1471년)에도 사급미두로서 명문화되어 있다.

이때쯤 쓰시마와 나고야의 '왜장' 즉 소 요시토시와 데라사와 마사나리가 조선에 수호를 요청하려 하였으나 간파쿠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피로인 증언이 있다. 도쿠가와 정권으로서는 여전히 '체면'을 지킬수 없으면 강화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을것이다. 그러한 와중에 소 요시토시가 시마즈 요시히로의 서계를 명장에게 보내는 기회를 이용하여 쓰시마 독자적인 입장에서 강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전쟁전 기극권익을 부활시켜 전쟁에 의하여 황폐화된 영지를 재건하고자 하였다. 다만 야스치카는 그대로

구속되어 명나라에 보내여 진다.

## (2)1599년(게이초 4 · 선조 32 · 만력 27)

2 월 조선에 일본이 다시 쳐들어 온다는 설이 널리 퍼지고 있었다. 이때 명나라는 조선의 '통왜'에 관하여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다. 즉 조선은 명의 '번리'이기 때문에 '왜노'와 '사통'하는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통왜' '호시'는 화근의 근원이기에 허락할수 없으니 명나라에 대한 사대에 전념할것을 요구하였다.

전년 명장 정응태가 조선과 일본이 결탁했다고 날조하여 신종(만력황제)에게 상주하였다.이 무주사건의 여파로 《해동제국기》 사본과 생각지도 않던 《해동기략》의 존재가 밝혀져 건국 이래 명나라의 문책을 두려워하고 있던 일본과의 '사교' [木村 2011] 가 로출되었다.이에 대하여 선조는 일본을 '기미'하면서 명나라에 '공순'하여 왔다고 변명했다. 조선은 일본(중앙정권)과의 교린관계와 쓰시마와의 기미관계를 설정하고있었는데 일본은 기미 대상이 아니었지만 무주사건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교린'이라는 틈을 봉인할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무주사건이후 명나라가 조선 대일 외교를 규제했다는 견해 [李 1997] 가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견해도 펼쳐지고있다 [鈴木 2011] . 또 명나라는 조선 대일외교에 간섭하지 않는것이 기본자세였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 [閔 1994] . 명나라가 '통왜' 를 허락하지 않는것은 이 특이한 상황에서 당분간 판단한 것이였을것이다. '통왜'가 허락되지 않고 교린을 봉인한 상황에서 조선이 모색할수 있는 옵션은 기미에 한 한다. 그 후 조선이 쓰시마와의 기미관계 회복을 우선한 것은 현실적인 상황대응인 것은 물론, 이러한 명분상 문제도 영향을 준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3 월에는 '왜자' 10 명이 부산에 도착하여 '수호'의 '회복'을 청하였다.그들이 지참한 서계에는 '왕자' '배신'을 보내겠다는 약속이 실행되지 않은것을 질책하고 '재범'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었는데 조선측은 '꽤만한 말'이 많다고 반발하였다. 전년 9 월에 내놓은 도요도미 정권 방침이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것이다. 이때 사자는 요시조에 사촌이었다. 그는 소 요시토시에 봉사하는 이료<sup>(1)</sup>이므로 소 씨의 의향이 포함되어있다고 보는데 결국 요동도사가 관할하는 광년에 보내여진다.

5 월 조선의 정의는 영의정 유성룡을 중심으로 강화론이 우세였다.북방 여진(육진번호 · 건주여진)에 대한 군사적대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대일 강화는 현실적인 옵션이었다.그러나 명분론을 절대로 하는 태간의 맹렬한 탄핵이 있어 선조는 강화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인다. 또 유성룡은 정응태무주사건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해 북경에 사행하는것을 거절하여 탄핵을 받아 파면되었다.

6-7 월 일본 사자 도시자네가 명장 인질 하응조 등 5 명 및 정희득 등 포로 20 명을 송환하였다.후세 사료는 도시자네를 가케하시 시치타유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소씨의 이료를 배출하는 유에씨라고 본다. 그가 지참한 부산감사에게 보내는 야나가와 시게노부의 서계는 7 월 14 일에 한성에 회송되었다. 서계는 도요도미 히데요리가 히데요시의 후계자로서 전대와 변함없이 정권은 반석위에 있다고

(1) 「歩行御判物帳」中村儀右衛門所持文書 4 通のうち 1 通は、1600 年に宗義智が中村善吉智正に対して発給したもので、「高麗有用所、其方父左近助差渡候之處、彼地へ被相留」(朝鮮に用件があり、あなたの父左近助を遣わしたところ、現地で抑留された)として米 5 石を給付している。また、別の 1 通は、1590 年に義智が中村智正の近親である吉副左近助に立右衛門尉智元の名を与えたものである。これら 2 通からみて、中村智正の「父左近助」は吉副左近助とみてよい。

하면서 명장과 약속한 '일개 사신'이 일본에 오지 않으면 전쟁은 끝나지 않을것이라고 조선측을 질책하고, '사신이 바다를 건너는것'이 '태평기책'이라고 다그치고 있다. 또 지난해 요시라(고니시 요시로) ·야스치카의 억류에 대하여 '소인이 하는 일' '관인하지 않은 길'이라고 항의하고 있다.이러한 강경한 주장을 늘어놓으면서도 양국이 강화하면 쓰시마에 있는 포로를 송환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하고있다. 조선의 왕자가 아니고 사절이 일본에 올것을 요구하는것으로 툇다우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인 타협라인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외교압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도요도미 정권의 동요를 감추고 있는것을 엿볼수 있다.

이에 대하여 조선 측이 '홍적의 공갈'이라고 맹반발하여 선조는 7 월 23 일자 자문에서 명 나라 경리조선군무도찰원에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변장인 부산검사의 이름으로 답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그것은 검사가 예조(외교를 관할하는 중앙관청)에 상신할 생각이 없다고 문전박대하는 내용이었다.

또 시게노부의 서계에 기재는 없지만 사자 도모미는 그 전날 사미를 요구하고 있었다.이는 전술한적이 있는 사세미두를 가리킨다고 보면 된다. 쓰시마 측은 도요도미 정권으로부터 강화에 대한 지시를 받으면서 ,종래의 독자적 입장을 회복하려고 하였던것이다.

8 월 도모미 등은 조선에 거절당한 사절이었지만 명장의 판단에 의하여 한성에 상경하였다. 조선은 경략 만세득에 항의하였는데 도모미 등의 처우를 둘러싸고 분규가 발생하고 결국 구속되어 명나라에 보내졌다 [洪 1995] . 여하튼 조선은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쓰시마 측에 대한 대응으로서 강화는 명나라에 자문하지 않고 '자천'(자주적 판단)할수 없다는 방침을 표면상으로는 이어가고 있었다.

### (3)(케이초 5 ·선조 33 ·만력 28)

전년말부터 조선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대입'했다든가 '관백지임'을 '섭행'(대리)하고 있다 '집정'하고 있다 등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었다. 그러한 와중에 2 월 9 일 피로인 김유성(김유팽라고도 함) 등을 태운 배 두척이 경상도에 도착했다. 그는 '가라츠 도적'(테라자와 마사시게)에게 억류되어 있었는데 가라츠를 방문한 야나가와 시게노부가 4 명과 협상하여 송환을 결정하고 화의를 담당기로 하였다고 한다. 사절 억류가 계속 되고있는 상황에서 김유성에게 서계와 그 외 피로인(159 명)을 부탁하는 방책을 취하였을것이다. 그에게 부탁한 서계는 소 요시토시 · 야나가와 시게노부의 서계 4 통(예조앞,동래 · 부산앞,요시라앞) 및 고니시 유키나가 · 테라자와 마사시게연서서계(예조앞)였다.동월 24 일에는 일본에서 귀환한 방언룡이 경략 만세득에게 요시토시 · 시게노부가 강화를 바라고 있으며 '조선국사신 한명'과 '칙서 한장(선조의 국서)이 오면 명장으로부터 맡고 있던 질관을 송환하고 조선 피로인을 순차적으로 송환할 예정인것 같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4 월 '왜선' 2 척이 조선에 착안하여 명나라 질관 왕건공 · 진문동을 포함한 40 여명과 피로인 20 여명이 귀환하였다. 시마즈 요시히로가 직접 복건으로 소환한 질관 모국과 및 객사한 유만수를 제외하면 질관 · 질자 전원이 송환된것이다.

이때 요시토시 사자인 '왜장'이 지참한것이 3 월 28 일자 요시토시 서계와 시게노부 서계(예조앞) 및 유키나가·마사시게 연서서계였다. 요시토시 서계에 의하면 '왜장'의 이름은 시게즈구인데 후세의 기록은 이시다 진 자에몬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시다 시게즈구는 쓰시마의 특권장인으로서 전시에 요시토시의 통사를

담당하였다<sup>(2)</sup>. 서계에서 요시토시는 조선 측이 무회답인 것, 전년 사신을 억류한 것, 조선 사절이 바다를 건너지 않는 것 등을 비난하고 속히 사절을 파견하는것이 종전의 실현에 필요한것이고 그것이 '타이고의 유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시게즈주 서계에서는 '타이고 쇼우코쿠' 의 '유명'을 받은 이에야스가 히데요리를 보좌하고 있으므로 정권은 반석위에 있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하여 '이사(왕건공·진문동)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한편 유키나가·마사시게의 서계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피로인 소환에 대하여 도요도미 히데요리에게 상신하였는데 히데요리가 요시토시에게 송환을 명하였다는 내용이였다. 진위는 불명하나 이에야스의 정권장악 정보가 조선내에서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유키나가·마사시게로서는 종전대로 외교압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에야스는 어디까지나 도요도미 정권 일원이고 정권이 반석위에 있다는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것이다. 그리고 외교권이 도요도미가에 귀속되고 있다는것을 내외에 알리고저 하는 뜻도 있었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 [中野 2008].

유키나가·마사시게는 회답이 늦어지면 또다시 전쟁을 불러 올수 있다고 경고하며 강화를 폐급히 서두고 있다. 조선과의 강화는 쓰시마의 생명선이기 때문에 요시토시장인 유키나가 사적인 입장에서 강화를 서두르는 측면은 부정할수 없지만 마사시게가 관여하고 있기에 어디까지나 도요도미 정권 일원 입장에서 회색한것이라고 본다. 정권의 균열이 깊어지며 미증유의 내란으로 변질수 있는 상황에서 쓰시마 공격 가능성 [洪 1995·中野 2008] 을 품고 있는 명군의 존재는 위기가 될수도 있었다. 때문에 명군의 조기 철퇴가 이루어지도록 조선과의 강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완전 철퇴를 목전에 둔 명군도 철퇴시 일본이 후방을 재공격하는것을 회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타이밍에서 질관·질자의 송환이 실시된 것은 일본 측과 명군 측의 속셈이 일치하였기때문이 었을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서계는 조선 변장이 아닌 명장이 접수하여 경리에 상정된 후 조선정부에 회부되였다.이러한 수속을 걸쳤으므로 조선정부로서는 정식회답을 할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조선으로서는 북방 여진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명군의 완전 철퇴를 주시하면서 일본과의 강화를 현실적인 옵션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래서 회답서계를 보내 강화의 포석으로 삼았는데 서계의 접수를 둘러싼 수속론은 강화반대파를 누르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수 있다.

5 월 조선은 요시토시·유키나가·마사시게를 예조참의(정 3 품)과 적례(대등), 시게노부를 예조정랑·좌랑(정 5 품·정 6 품)과 대등하다고 정하고 참의 이름과 정좌랑 이름으로 회답서계 소안을 비현사가 준비하였다. 그러나 사자인 이시다 시게즈구 등이 이미 부산에서 출항하였기 때문에 군관 김달·교정 박희근·통사 이만유 등이 쓰시마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2) 「歩行御判物帳」(1687) 長留甚左衛門所持として 1600 年(慶長 5) 3 月以降の文書 5 通を収録している。1608 年の文書によれば、宗義智が「石田甚右衛門尉」に九郎右衛門尉・智方の官途名・実名(諱)を与えており、石田調次と同一人物とみられる。甚左衛門(尉)・調次は先代の宗義調から与えられた名であり、あらためて義智から九郎右衛門尉・智方を与えられたのである。もとは府内の町人であるが、通詞・使者としての功績により、調次(智方)もしくはその子孫が下級城下士である「歩行」格の身分を得たものと考えられる。

이때 김달이 지참한 서계 중 유키나가·마사시게 앞으로 보낸 예조참의 서계의 초고본이라고 추정되는것이 존재한다<sup>(3)</sup>. 그에 의하면 강화에 대한 의사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일본 측 강화 의사에 대한 회의적인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더욱이 명군 주둔중이기 때문에 독단으로 강화를 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 조선은 명나라의 위세를 비는 '차중지계' 및 강화를 뒤로 연장하는 '천취지계'를 모색한다 [李 1997].

9 월 1 일 요시토시·시게노부 서계(김달의 쓰시마 내도 후 송부된것)에 대한 회답서계 문안을 비변사가 작성하였다. 쓰시마 측이 '세즈지 치쇼'(계절마다 보내는 서계)를 보낸 것은 성의가 있다고 어느 정도 긍정하고 피로인 전부를 송환하여 '갈성자효'(스스로 성의를 표함)하면 조선도 '자신지로' 를 선택하겠다고 하고 있다. 피로인 송환만이 성의의 증표이고 그 추진이 강화의 조건이라는것을 역으로 제시한 셈이었다.

그러한 조선 측 판단의 배경에는 경력 만세덕이 출국하고 명군의 완전 철퇴가 완료하는 반면 조선의 '자강지계'가 금방 시작된 군사적 공백상태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9 월 15 일 도요도미정권을 이분하는 세키가하라 전투가 발발하였는데 동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하였다. 종래의 강화창구였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서군 수모자로서 베여지고 유키나가의 사위 요시토시도 서군에 가담하였다. 한편 또 다른 창구인 데라시마 마사시게는 동군에 가담하였다. 요시토시는 이에야스의 문책을 모면하였지만 조선과 강화를 서둘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필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中野 2008].

## 2 명군철퇴 후 강화교섭(1600 년 10 월-1604 년 4 월)

### (1) 1601 년(계미초 6 ·선조 34 ·판력 29)

2 월 조선정부는 일본사절이 7 개월간 도래하지 않은것에 의심을 품게 되고 일본 국내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있다는 정보가 나돌았다. 전년 8 월쯤 소 요시토시의 사절파견을 최후로 사절이 끊어졌다. 이것은 세키가하라 전투 영향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

4 월 '왜자' 1 명과 '도환인' 11 명이 조선에 도착하여 '일본국중란'이 발생했을 때 고니시 유키나가의 패사를 전달하였는데 특히 강사준은 세키가하라 전투 전후의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즉 요시토시는 오사카에 있고 야나가와 시게노부가 쓰시마를 '총령'(정무 지휘)하고 있는 점, 요시토시는 강화가 성립되면 피로인을 모아서 송환할 예정이라는 점 등이었다. 일본 대란과 유키나가의 패사라는 중대한 정보를 접한 조선정부는 '도환인'의 증언에는 회의적이고 일본에 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방침으로 기울어진다.

그런 복선이 있는 중에 6 월 '왜인' 10 명이 부산에 착안하고 남충원과 피로인 250 명을 송환하였다. '왜인'이 지참한 시게노부 서계와 마사시게 서계 등은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위협'의 뜻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왜만지어'는 없었다고 한다. 또 남충신의 증언에 의하면 요시토시·시게노부는 오사카에 올라가서 작년의

(3) 对馬藩で編纂された『朝鮮通交大紀』(松浦允任編)と『善隣通書』(阿比留恒久編、17世紀末~18世紀初期成立カ)に収録されている。いずれも出典を『青陸集』とし、後者は「和好第一番書 石田甚左衛門返翰 出青陸集」とする。『青陸集』とは、金徳謙の文集であり、同書卷六・掲帖・日本回書に同文(案)が収録されている。つまり、松浦允任または阿比留恒久が、当時、日本に流入していた朝鮮本の『青陸集』から発見したものとなる。その書契の一節に「有問不答亦云非礼、茲布遠情、以報 惠書」とあり、初めての返書であることが明示されているので、このときの礼曹参議の回答書契(案)とみて差し支えない。ただし、文中に「貴島」ではなく「貴邦」とあるので、对馬の義智または調信に宛てたものではない [洪 1995]。したがって、1月27日付の行長・正成連署書契に対する礼曹参議回答書契の草稿本であると考えられる。

'박희근지래서' (전년 5 월 요시토시·시게노부에 보낸 서계) 취지를 이에야스에게 보고 했다고 한다. 그 진위는 상세하지 않으나 일련의 강화교섭에는 데라시마 마사시게도 관여하고 있으므로 요시토시·시게노부 등은 '도요도미'정권 일원으로서 이에야스 의향에 따랐을 가능성이 크다<sup>(4)</sup>.

한편 조선정부에서는 회답서계의 문안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다. 요시토시·시게노부의 요구가 이에야스의 진의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견해가 강하였으나 쓰시마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를 양포하고 있으므로 거절하기가 어렵다', '병력이 적으니 기미에 의하여 쓰시마의 책동을 제지하여야 한다', '기미를 함에 있어서 먼저 쓰시마의 혁면사죄가 필요하다' 등 쓰시마를 기미하라라는 주장이 대세였는데 쓰시마를 기미할 경우 명나라에 대한 설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위구도 있었다. 이렇게 쓰시마 기미가 공론화 되고 정식 방침으로 결정된다 [閱 2002·河 2002]. 왜구의 재발 방지는 물론 쓰시마를 환충지로 하여 일본의 재공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할수 있다.

그러한 논쟁을 걸쳐 작성된 8 월자 요시토시앞·시게노부앞 예조 참의 정업의 서계가 『続善隣国宝記』 등에 수록되어 있다. 먼저 요시토시에게 보내는 서계에 의하면 요시토시의 서계에는 삼한정벌을 시사하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조선 측은 신라·백제이래 변경에서 우발적인 트러블이 있었긴 하나 그것은 島嶼間에서 약탈을 하는 자들 짓에 불과하니 나라를 기울여 군사를 일으켜 부당하게 침공하여온 '임진·정유'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반론하고 있다. 그리고 명나라는 정병 20 여만을 팔도에 배치하여 둔전·교련하고 있으니 천장의 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선'은 할수 없다고 하면서 '재앙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닦우쳐서' '후복'을 바라는것이라면 수록제장은 천조에 보고할것이니 '양국의 행운'이라고 말하고 있다. 요시토시 측은 '도요도미정권'을 배경으로 하여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조선측도 '거짓말'을 털거하면서 '차중지계' '천취지계'를 모색하였다. 그러한 흥정을 하면서도 조선은 요시토시에게 '재앙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닦우칠 것'을 요구하고 쓰시마와의 강화 의사를 전하였다.

조선이 쓰시마와의 강화를 위한 논리는 시게노부에게 보낸 서계에 응축 되어 있다. 즉 200 년래 쓰시마인을 '내지의 적자'로 여기고 '조빙'(의제적 조공)하여 오면 '상사'를 두텁게 하여 쓰시마에서 번성하고 있는 초목에 이르기까지 전부 '국가'가 '함육'하여 온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쓰시마에 대한 기미를 강조한것으로 '족하의 힘'으로 '일본의 병'(전쟁)을 제지 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으로서는 쓰시마를 기미하여 환충지대로 함으로써 남방의 국방을 견고히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또 장래를 응시하여 '기왕'에 구속되지 않는것이 '성인지심'이고 '허인각면'(상대를 용서하고 태도를 고치는 것)이 '왕자지도'라고 하고 나서 일본의 '성신'과 쓰시마의 '참회'가 '충곤한 것' 이라면 조선이 이를 '천장'에게 보고하여 천장이 '천조'에 보고할 것이므로 '천'도 강화를 허할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천'을 최상위에 올려놓고, '천조'의 책봉을 전제로 하여 일본·쓰시마 등과의 교련·기미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명분론을 구축하고 있는것이다. 조선정부 내에서는 태간을 중심으로 강화반대파가 일본을 '불공대천'의 '구적'으로 단정하는 명분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때문에 강화추진파의 명분론은 아마도 반대파의 언설을 누르기 위한 대내적인 의미를

(4) 1603年、礼賓寺奴の朴守永が調信からの情報として証言したところによると、秀頼と家康は諸大将を集めて會議し、講和を進めるために義智の「築城之役」を全免したが、既に4年が経過したので、今年の春までに決着しなければ、義智は急ぎ大坂に登らねばならないという(宣祖 36・3・庚辰)。真偽は不明であるが、講和交渉を推進するため、豊臣政権が諸大名に賦課する普請役を特例として免除されていたとする点は注目される。

떡고 있었다고 할수 있겠다.

그리고 11 월이 되니 요시토시는 '토모마사'를 조선에 파견하여 강화를 요청하였다. '토모마사'는 쓰시마의 특권장인인 이데 토시마사 (본명 타치바나 야로쿠 사에몬노조 )를 말하는데 전시에는 아사노 나가마사의 통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조선어에 능란하여 이후 강화교섭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sup>(5)</sup>. 그가 지참한 요시토시 서계는 전번 이조 서계의 '제앙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뉘우친다'는 문언을 인용하고 나서 이에야스가 늘 철병을 간언하고 있고, '일본'(도요도미정권)은 '잘못을 바로잡고 강화를 청하고저 하며', 강화가 이루어지면 '양국의 행운'이라고 전하고 있다. 조선 측에서는 그 내용을 '강화를 재촉하는 공갈 위협'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지만 적어도 문면상 강경 자세가 사라지고 맺는 문언도 종래의 '황공돈수근언'으로부터 '황공불선돈수근언'으로 바뀌어 더 한층 저자세가 되어있다. 그리도 선조는 요시토시·시게노부 진상품에 대하여 호피·표피·궁자 등을 회사하고 토모마사에게는 입쌀 40 석을 포상으로 사급하였다. 이러한 국왕의 사물(회사·특사)은 전쟁전까지 전통적인 관행이었다. 요시토시 등이 진상품을 준비한것은 조선 측 강화 의사를 확신하였기 때문이고 [洪 1995], 조선 측도 쓰시마와의 기미관계 재개를 즉물적인 형식으로 전달한 것이다.

그리고 요시토시·시게노부에게 보내는 예조의 회답서계가 12 월 1 일자로 작성되었다.전자는 요시토시의 '권권지의'(충성)을 인정하고 '왕자는 기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다시 명시하고 '혁면개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리하여 요시토시는 '혁면개신'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피로인 송환에 주력하게 된다.

## (2)1602 년(계이초 7 · 선조 35 · 만력 30)

전년 12 월말부터 2 월에 걸쳐 조선정부는 탐적사의 쓰시마 파견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그 인선에 있어서 유정(송운대사)는 일본인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어 곤란하다고 하였다.그래서 유정이 명국내에 있는 경리 슬하에 있다고 속이고 군관 전계심이 유정의 이름으로 된 서계를 쓰시마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또 일본사정에 정통한 손문옥 외 '군문시후'로 위장한 통사 김효순을 수행하게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유정은 실지 하양현(경상도)에 있었기 때문에 쓰시마 측에 공작이 드러나는 것을 위구하여 유정의 스승 휴정(보진, 서산대사)의 이름으로 서계를 보내기로 하였다. 다만 휴정은 전시 의병장이었지만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중벌이 내려져 있었다. 이것은 나라의 체면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불승을 이용한 정찰공작이었다. 이때 경략 만세덕은 쓰시마와의 강화책을 지지하고 그 당부에 대해서는 자주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태도였는데 조선 측은 명나라 조정으로부터 확언을 언지 않는 한 종래와 같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지 않을수 없었다 [中野 2008] .

김계신의 쓰시마 래도에 해당하는 5 월 '왜인' 2 명이 이에야스의 명이라고 칭하면서 피로인을 송환함과 동시에 서계 5 통을 지참하였다. 그 응접은 김계신이 담당하였다. 5 월자 요시토시 앞 예조참의 송준의 서계는 요시토시의 '충성'을 인정하고 사자에게 '사미'를 주었다. 또 6 월자 요시토시에게 보내는 예조참의 송준의

(5) 1583 年、井手弥九郎が義智(當時は昭景)から「弥六左衛門尉」の官途名を授けられている。その後、義智から「智正」の諱を授けられたのであろう。当該文書が「馬廻御判物帳」(1687 年)に収録されていることから、井手智正ないしその子孫が城下士の最上位である「馬廻」格の身分を得たことを示唆する。

서계에 의하면 그 사자는 이데 토모마사이고 상사의 내용은 '미포'였다. 그 위에 6 월자 시게노부에게 보내는 전계신의 서계는 쓰시마에서 '관접'(성의있는 접대)을 받아 손문옥도 그 사정을 명나라에 보고했다고 서두를 떼고 명장·휴정에 관한 허설을 엮으면서 가라츠어민의 약탈사건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것이 강화 성립의 장애라고 시게노부를 책망하고 있다.

7 월쯤 시게노부는 토모마사 등 9 명을 파견하여 피로인 104 명을 송환하였다. 이때 토모마사는 조총 10 자루·산달피·16 장·단목 15 근·오징어 70 단을 상품으로 지참하고 있다. 조선측은 등밀무역과 기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가'가 '두매' 즉 전수를 공무역으로 구매하기로 하였다. 규모는 작지만 부산에서 공무역이 사실상 재개된 것이다. 1471 년 이후 공무역(관아와의 무역)·사무역(특권상인과의 무역)의 장소는 기본상 한성이었고 포소에서 사무역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 [長 1997·荒木 2017]. 그런데 전후 강화교섭 과정에서 공무역 장소가 한성에서 부산으로 옮겨지니 사무역 장소도 필연적으로 부산에 옮겨지게 된다. 근세 일조무역의 기본 틀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8 월 '왜인' 14 명이 피로인 229 명을 송환하니 조선은 '미석'을 지급하였다. 8 월자 요시토시에게 보내는 예조 참의 송준의 서계에 의하면 사자 토모마사가 피로인 172 명을 송환하니 '귀도의 공손지심'을 인정하여 '미곡'을 지급하고 있다. 피로인수에 57 명의 저어가 생기는데 토모마사와는 다른 배로 도래한 '왜인'에 의하여 송환된 것이라 본다. 나중에 서술하는 1603 년 2 월 시게노부 서계는 '작년 가을 토모히사 귀일'로 되어 있으니 그 '왜인'은 토모히사(타치바나 토모히사)라고 생각한다. 여하튼 7-8 월에 종래보다 대규모 그리고 집중적으로 피로인 송환이 실시된 점은 주목된다.

그리고 11 월에도 이데 토모마사 등 20 명이 피로인 129 명을 송환하였는데 그가 지참한 서계는 11 통에 달해 '적추'(고니시 유키나가의 잔당,수령명 사쓰마노 가미)의 서계도 포함되어 있었다. 종래와는 다른 서계 준비 방법이었다. 그리고 이에야스는 강화교섭 일체를 요시토시에게 위임하고 1 년내에 강화를 성립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면서 내년 봄 '통신사'를 파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때 시게노부가 손문옥에게 보냈다고 추정되는 서계중에 '귀국의 작년 가을 서계 취지'를 이에야스에게 보고 했다는 것이 주목된다. 즉 전년 8 월자 예조 참의 정엽 서계의 취지(강화 의사)가 이에야스에게 보고되고 이에야스는 강화의 '성불성'을 속히 결정할 것을 명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에야스의 관여 정도인데 이 해에는 이에야스로부터 요시토시에게 서장이 보내졌다 [德川 1983]. 그것은 12 월 30 일자의 것으로 '고려의 일'은 '별지'로 확인했다고 적혀 있다. 그러면 시게노부가 실제로 정엽 서계의 취지를 이에야스에게 보고 했다는 것인데 서계를 받고 보고하기까지 약 1 년간의 블랭크가 있는 셈이 된다.

즉 1601 년 가을부터 1602 년 겨울까지의 사이에 이에야스가 조선과의 강화에 강한 관심을 표하게 된 것이고 그 때문에 1620 년 4 월에는 가토 기요마사가 요시토시를 앞지르고 강화를 성립하게 하려고 한 '기요마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요시토시는 강화교섭의 진전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에야스에게 보고 할 필요가 생기고 반대로 말해서 그 전에 이에야스의 관여는 적은 것이었다고 본다.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도요도미 정권이 붕괴되고 도쿠가와 정권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이에야스는 조선과의 강화에 강한 이욕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1601 년 요시토시 등은 쓰시마 이외의 지역에 억류 되어있는 피로인을 모으기 시작하고 1602 년 이후 조선에

송환한 것으로 보아 이것을 이에야스의 권력장악 과정과 궤가 일치한 동향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洪 1995]. 후세 자료로부터 이끌어 낸 견해이기는 하나 1602년 가을-겨울의 피로인 집중적 송환은 송환대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종래 쓰시마 측은 도요도미 정권의 지시하에 '사신파견'을 요청하였는데 1602년에 처음으로 '통신사' 파견을 요청한 것이 [洪 1995] 주목된다. 도요도미 정권은 '체면'을 지키기 위하여 조선 측으로부터 강화를 청하는 사절을 파견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그 명분이 '통신사'인지 아닌지는 2차적 의미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쓰시마 측이 굳이 '통신사'를 지정한 것은 그 사절단 규모의 크기와 화려함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연도 체다이묘에게 대규모 사절단의 응접·호송을 분담케 하는 것은 도쿠가와 정권의 다이묘 통제 '시금석'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도쿠가와 정권은 그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신사를 '조공' 사절로 보이게 하여 장군의 '위광'을 내외에 알리는 데먼스트레이션으로서 이용하니 그 정권의 성격은 '보이는 정권' "보여주는 정권"이었다고 한다 [도비 2008]. '통신사'의 파견요청이 이루어진 것은 이에야스의 장군 선하 후 신정권이 수립되는 약 3개월 전의 일이니 역시 도요도미 정권이 요구하고 있는 사절과는 그 뜻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통신사'의 지정이 이에야스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요시토시의 발안에 의한 것인지는 불명하나 신정권 수립의 타이밍에 맞춘 동향인 것은 확실하다.

한편 조선 측은 시게노부에게 보낸 손문옥 서계에서 전계신 등의 쓰시마 시찰시의 응접이 '은근 친절하고 성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기요마사'의 배경을 조사하기 위하여 또다시 시찰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이에야스의 동향을 파악할 수 없다. 또 신임 경략 건달이 강화에 회의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조선으로서는 그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자주적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洪 1995].

### (3) 1603년(게이초 8·선조 36·만력 31)

1월 손문옥과 이데 토모마사의 문답기록이 한성에 보내지고 토모마사는 3월에 재래 할것을 예고하고 귀도하였다. 그리고 2월 12일 이에야스가 정이대장군 선하를 받아 도쿠가와 정권(바쿠후)가 탄생하였다.

3월쯤 토모마사는 2월 12일자로 추정되는 요시토시 서계와 시게노부 서계를 지참하고 피로인 88명을 송환함과 동시에 강화를 요구하였다. 그 한편 토모마사는 동을 지참하고 있어 조선정부는 경상도가 전수를 구입하게 하였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금후 절반 양을 구매하기로 하고 토모마사에게는 상미 60석을 주었다. 공무역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그렇고 요시토시 서계는 '군문'(경략)에게 보내는 것과 예조에게 보내는 2통이었는데 신임 경략 건달을 교섭상대로 하고 '내신 이에야스'가 작년에 휴정 서계를 '일람'하였다고 전하고 예조에게 그 후 응대를 요구하고 있다. 건달에 대하여서는 시게노부가 '왕경'(수도)에 가서 '내신 이에야스'가 작년에 휴정 서장을 '일람'한 것을 전하고 피로인 송환과 강화요구는 '일본'의 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게노부 서계는 예조앞·휴정앞·유정앞·전계신에게 보내는 4통인데 모두 가라츠어민 약탈 사건에 대한 변명과 '기요마사'에 대한 반론을 말하고 있다. '기요마사'는 동년 4월에 가토 기요마사의 사자가 복건에 도착하여 피로인 87명을 송환함과 동시에 '왜서' 2통을 제시하며 조선과의 강화를 요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조선 측은 이원외교에 대한 반발을 키우고 있었다. 시게노부는 강화의 장애요인이 되는 이러한 사안을 해소하여 통신사의 조기 파견을 실현하려고 하였는데 그가 전계신에게 보낸 서계가 주목된다. 즉 도요도미 정권에서는 '여러 다이묘가 조선과의 강화가 성립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강화가 성립되지 않은 채로 이에야스가 국정을 히데요리에게 물려주면 이에야스는 히데요리에게 신하로서 따르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에야스는 '가이몬'(내대신)을 사임하고 '류영(바쿠후)을 지키기로 하였다. 우리는 배를 준비하여 강화 '성불성'의 통지를 기다리겠다' 라고 하고 있다. 강화교섭이 늦어지면 이에야스의 정권수립에 직접 영향이 있다고 하는 흥미로운 기술이다. 이것을 그대로 다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강화교섭 지연이 도요도미정권 내에서 이에야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신정권의 수립을 지향하는 이에야스가 스스로 정권을 위하여 강화 성립과 통신사 파견을 바라고 있었다고 읽을 수 있다.

한편 조선 측은 4 월자로 요시토시에게 보내는 예조 참의 이철의 서계에서 '충성심'을 인정하고 '순리수성'(도리에 따라 귀순하다)하면 '천'은 강화를 허락할 것이라고 하고 '기요마사건'은 '악의적인 장난'이라 하며 그 이상 언급은 피하였다. 또 4 월 22 일자로 시게노부에게 보내는 손문옥의 서계에서는 군문 건달에게 '죽자가 순리수성한 사실'을 보고하겠다고 전하고 있다.

6 월 타치바나 토모히사가 조선에 도래하여 이에야스가 독촉하고 있다고 하면서 통신사 초빙에 대하여 교섭하였다. 그가 지참한 요시토시 서계는 강화교섭 명령을 받은 자는 요시토시 외에 존재하지 않음을 이에야스가 보장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 진위는 불명하나 요시토시로서는 '기요마사건'을 없던 일로 하고 조선과의 강화교섭 루트를 독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6 월자 요시토시(도요도미 히라기미) 앞 이조 참의 이철의 서계에서는 '귀도 서계의 내용'을 경략에 급히 보고하였으니 회답을 기다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종래 요시토시·시게노부는 히라 성을 병용하고 있었는데 이철서계를 마지막으로 왕래서계에서 도요도미 성이 사용되지 않고 강화교섭을 '타이코의 유명'이라고 칭하는 일도 없어진다. 이것은 도쿠가와 정권이 명실공히 성립된 후 도요도미 성을 칭하기보다 이에야스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득책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쓰시마 측 외교공세에 대하여 변형사는 강화를 '헛되이 지연'한지가 이미 3 년이 지났고 현재 개시가 잠정조치이기 때문에 금후의 조약 체결을 목적으로 의논을 개시하였다. 찬부 양론이 있었는데 찬성파에 한해서도 역시 명나라가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경략 건달에게 자문하였는데 '왜노'가 와서 무역을 요구하는 것에 대비하여 해안 방비에 힘쓰라는 회답을 얻고 있다. 쓰시마와의 강화·개시에 관하여 건달은 용인하는 자세를 표명하였다.

11 월 피로인 김광이 귀한하여 그에게 보낸 시게노부 서계와 게이테쓰 겐소의 서계를 지참하였다. 전부 전쟁전부터의 역사적 경위에 대하여 언급한 시게노부 서계에는 '왕자 일건'(1597 년의 강화조건)을 되풀이하는 문언도 보여진다. 다만 겐소의 서계는 강화가 실현되지 못하면 요시토시·시게노부는 죄를 면하지 못할 것, '신사가 도해하여'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김광의 조선에 대한 충절이라고 말하고 있다. 발신자에 따라서 문언에 강약은 있으나 요시토시·시게노부의 서계는 전부 겐소가 기초한 것이었다. 의도적으로 서계 문안을 따로 써서 강약을 엮으면서 '신사의 도해'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 (4)1604년(게이초 9·선조 37·만력 32)

2월 김광이 이에야스는 또 조선을 공격할 작정이라 하고 요시토시·시게노부가 강화를 서두르는 것은 세키가하라의 전투에서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힘을 실어주어 '동당'으로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경상도좌수사는 요시토시·시게노부는 김광과 말을 맞추고 있으며 본심은 강화를 바라고 있지만 김광에게 일부러 전쟁재발의 가능성을 말하게 하여 조선 측의 반응을 시험하고 있다고 간파하고 있다. 김광의 증언을 듣고 조선정부는 또다시 쓰시마 시찰에 대하여 의논한다. 이것이 쓰시마와의 강화(허화)가 성립되는 계기가 되고 [洪 1995], 통신사의 파견요구를 중요시 하는 계기가 되었다 [洪 1995]. 그리고 3월에 이데 토모마사가 도래하여 강화요구를 하자 조선 측은 쓰시마 시찰 요구를 토모마사에게 전하였다.

### 3 '명나라 간섭' 해소 후 강화교섭(1604년 5월-1607년 5월)

#### (1)1604년(게이초 9·선조 37·만력 32)

조선은 쓰시마 강화의 가부를 명조정에 자문하였는데 5월 '강신수목'에 대하여 자지절로 정하라는 공식회답이 있었다. 이에 일본과의 강화교섭 나아가서는 '사교' '교린'의 회복에 명나라가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는 적년의 걱정이 사라졌다. 종래는 강화교섭에 관하여 사전협의의 하야 왔는데 이후는 사후보고로 끝내기로 하였다 [閔 1994]. 이에 의하여 조선 측의 강화교섭이 가속화 된다. 6월에는 유정·손문옥·김효순·박대근의 쓰시마 파견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게 되는데 그들 일행은 7월에 이데 토시마사에 동반하여 쓰시마에 도착했다. 이 사행의 목적은 쓰시마에 대하여 '허화'(강화를 허하다)의 의사를 전하기 위함이었다 [閔 1994].

7월자 요시토시앞 예조 참의 성의문 서계에 의하면 토모히사가 피로인 50명을 송환한것에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고 경략 건달도 쓰시마의 성의를 인정 했다고 알리고 있다. 그리고 조선도 쓰시마가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여 조선을 우러르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예하면 일본에 과실이 있다해도 쓰시마와 절교할 도리가 없으므로 '왕래교역'을 잠정적으로 허락한다고 전하고 있다(아직도 잠정적 조치라 함은 조약 체결 전이어서 일것이다). 더욱이 쓰시마가 성의를 계속 표명하면 '제왕이 이를 대하는 도'는 관대한것이고 '천조도 영원히 절교하는 일은 없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쓰시마와의 강화와 일본과의 강화를 구별한 후 전자에 대해서는 기미의 논리를 전면에서 세우고 있다. 또 유정은 7월 11일자 쓰시마도 앞 예조의 유서를 지참하고 있다. 사문서 양식 문서가 아니고 관문서 양식 '유서' (하행문서)를 발하여 쓰시마에 대한 기미 자세를 명확하게 내 놓았다. 그 내용을 보면 쓰시마가 '혁신하여 나라에 향하는 뜻'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조선 측은 '기야로 고통받는 쓰시마를 '교시'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하고 쓰시마 측은 '귀화지심'을 '스스로 새롭게 할것'이며 만일 쓰시마의 사자가 '물화'의 '교역'을 요구한다면 '개시'를 허락하도록 경상도관찰사·부산절제사에 지시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조선은 일본인이 한성에 상경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산에서 호시할 것 그리고 서계의 왕래도 변경의 문무관(동래부사·부산검사)을 창구로하는 것을 제도화 한다. 이러한 조치는 북방의 육진번호에 대한 개시와 비슷한 관계다. 1599년 번호가 상경·진상·수상을 청하였는데 이듬해 조선은 상경을 허락하지 않고 함흥(함경도)에서 잠정적으로 진상·수상·연향·개시를

결정하였다.또 1595년 건주여진 누르하치도 통교와 상경을 요구하였으나 조선은 압록강상류 남안만포(평안도)에서 개시와 서계 교환을 하기로 하였다 [桂 2008].그러므로 비면사가 북방과 남방의 기미 정책을 상호 연관적으로 책정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건주여진의 세력 확대와 청조의 건국에 의하여 북방의 기미는 없어지지만 남방에서는 부산 왜관을 무대로 근세의 일조 통교가 장기적으로 전개 되었는데 그 기본틀이 이해에 정해졌다.

## (2)1605년(계미초 10·선조 38·만력 33)

유정 일행은 전년 중 쓰시마를 출발하여 교토에서 신년을 맞이했다. 그리고 2월 20일(명력 19일)쯤에 후시미성에서 유정은 에야스와 회견하였는데 쓰시마 측의 공작에 의하여 조선 측에서 강화를 요구하여 온것처럼 분장하였다 [米谷 2002].이때 유정이 지참한 예조 참의 성의문 서계는 쓰시마한 사서류 록문이 아니고 도쿠가와 바쿠후 계통의 모본과 사본의 존재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에야스에게 실제로 제출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양자의 문언을 비교하면 바쿠후 계통본에는 "다행이 이 뜻을 상세히 내부공에게 말하고" "보진대사 제자 송운"등 쓰시마한 계통본에는 없는 문언이 추가되고 있다. 즉 요시토시·시게노부 등은 급히 유정 등을 후시미 성으로 안내하게 되어 이것이 쓰시마 측의 공작이 아니고 조선 측 당초의 의향으로 꾸미기 위해 성의문 서계를 개찬하였던것이다. 종래 요시토시 등은 서계 취지를 보고하는것으로 끝냈는데 이에야스 회견시 서계를 제출할 필요가 생겼기때문에 개찬을 결심하였다.

어쨌든 이에야스는 이를 일단 강화라고 보고 그 은상에 대하여 요시토시에게 비젠 타시로 영지 2800곡을 가증하였다 [荒野 1998].이때 발하였다고 추정되는 5월 23일자 요시토시 앞 이에야스 고나이쇼(하달문서)에는 "무사히 강화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라"고 하고 있다.

요시토시는 이데 토모마사에게 유정을 조선까지 호송하라도 명하였는데 유정은 5월 상순에는 귀환하고 있다.유정이 가지고 온 3월자 예조앞 요시토시 서계에 의하면 작년 가을에 손문옥이 래도하여 '허화강호'(和好)한 것에 대하여 '아주 감격한다'고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또 요시토시·시게노부연명의 별폭(증품목록)에도 '화호' 성립에 대한 감사말 및 피로인 1390명 송환이 부기되어 있었다. 전년 가을 유정 등의 래도가 쓰시마와 조선의 강화 성립을 의미하는것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 한편 '본국'과 강화하지 않으면 후일 근심꺼리가 된다고 하는 견제 문언도 보인다.더욱 시게노부가 예조 참의 성의문의 서계를 에야스에게 전하자 에야스는 이를 '일람'하고 조선 사절을 후시미에 안내하면 '성심껏' 얘기 하겠다고 응하였다고 하고 속히 '허화지협'(강화의사의 증표)을 제시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전갈 이에야스 하달문서의 취지와 부합된다.

조선 측은 '허화지협'을 통신사로 해석했다. 그리고 선조는 쉽게 통신사를 파견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도 '왕자'는 '이적'을 영구적으로 거절할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통신사의 파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왕자'의 논리는 1601년부터 서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후 7월과 10월에 피로인 240명이 송환되고 11월이 되니 노부야스(본명 미나모토 관명 요자메몬, 야나가와 시게노부의 피관)가 강화 가부에 대한 회답을 재촉하였다. 그는 10월 13일자 요시토시 서계와 야나가와 토모나가(시게노부의 아들) 서계를 지참하였는데 전자는 피로인 123명 송환하는 것, 9월 29일에

시게노부가 사망하고 '조선과 일본의 강화'를 유훈으로 남겼다고 전하였다. 후자는 망부 노부시계의 유훈에 대하여 말하면서 '신사'를 요청하고 쓰시마는 귀국의 '동변'이라고 표명하며 아주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 '동변'의 표명은 원래 특별한 요구가 있을 때 사용되고 있었는데 [關 2002], 이는 남북 기미의 회복을 지향하는 조선으로부터 양보를 끄러내기 위한 수단이 될 틈이었다. 이에 대한 12 월자 요시토시앞 예조참의 서계는 '귀도가 나라를 향하는 성의를 높이 치하한다'고 하면서 조선 측의 쓰시마에 대한 태도가 더욱 완화되었다.

### (3) 1604 년(게이초 11 · 선조 39 · 만력 34)

이에야스가 둘째 아들 (히데타다)에게 간파쿠(장군직)을 물려준다는 정보가 떠돌고 또 시게노부 사망후 쓰시마 정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조선 정부는 또다시 쓰시마 시찰 당부를 의논하였다. 다만, 시게노부는 임진전쟁시 선봉이었기 때문에 차관의 명목으로 조위하는 것은 명분론에 의한 반대가 강하였으나 이것은 조선이 '자강지도'를 찾는 수단으로서 어쩔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 되었다.

2 월 이데 토모마사가 1 월 2 5 일자 예조앞 요시토시 · 토모나가(가게나오)를 지참하고 조선에 도래하였다. 그 내용은 올봄에 '사신을 보내는 것이' '강화를 하려는 증표'라고 재촉하는 것이었다.

4 월 토모마사와 통사 박대근이 부산에서 이에야스에게 보내는 국서의 양식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토모마사는 이에야스가 둘째 아들에게 국정을 물려주고 간포에 돌아갈 작정이라고 하고 그때문에 '신사'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재촉했다. 그 와중에 노부야스가 요시토시서계 · 가게나오서계를 (예조앞, 동래 · 부산앞, 송운앞,손문옥앞)으로 지참하고 강화 당부에 대하여 조속히 회답할 것을 요구하였다. 가게나오 서계는 망부 시게노부에게 보낸 부물(목면 20 필 · 정포 20 필 창미 20 석)을 '황은' 으로 표현하고 전년보다 더 낮은 자세를 관철하고 있다.

5 월 조선은 예조 판서 이름으로 '일본국집정대신'에게 보내는 서계안을 작성하고 일본과의 강화조건으로서 '범통적'의 인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5 월자 요시토시앞 예조 참의 성이문 서계에서 '귀국집정'에게 '차관'을 파견하는 것에 대하여 통지하였다.

6 월 8 일 고자에몬(관도명) 등 8 명이 조선에 도착하여 동래부사 · 부산검사앞 서계를 지참하였다. 18 일에는 부산에 장기 체재하고 있는 토모마사가 쓰시마를 향해 출발하니 조선은 상미 100 석과 과해량을 지급하고있다. 과해량은 《해동제국기》에 규정되어 있는것으로 전쟁전 일본인 통교자에게 지급되어 있던것이다.

토모마사와 손문옥 · 박대근 간 협의내용을 정리한 문답별록을 토대로 조선정부 내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에 의하면 토모마사는 이에야스 국서의 요구에 관하여 '제일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으로서는 이에야스가 구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본의'를 적은 서에 '일본국왕'을 명기만 하면 사절을 파견할수 있다고 응하였다. 더욱 1590 년 통신사는 일본으로부터 먼저 '국왕의 사절'이 래방하기 때문에 회답한것이다 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토모마사도 이에 납득하였다. 다만 토모마사가 차관의 파견에는 반발하였으므로 차관이 토모마사와 동행하는것은 보류하였다. '일본국왕'칭호에 대한 요구는 물론 조선국왕과의 대등성을 요구하고 있는것이다 [關 1994]. 다만 '일본국왕'칭호를 고집하는 것이 17 세기 전반에 특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천' 및 '천조'의 책봉을 전제로 하는 교린 · 기미의 회복을 대일 강화

명분론적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논리상 '일본국왕' 칭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것을 시사한다.

토모마사와 엇갈리면서 24 일에는 요시토시· 토모나가와 사자 노부히사(본성 후지와라 야나가와의 피관)등 12 명이 조선에 도래하여 예조앞 서계 2 통,동래· 부산앞 서계 1 통 손문옥· 박대근앞 서계 4 통을 지참하였다. 노부야스 부산 도착후에 도달했다고 보는 6 월 23 일자 예조앞 요시토시 서계에서는 토모마사에게서 부탁받은 '두 난사' 중 이에야스에게 국서를 요구하는 건은 곤란하다고 한 후 이전 구두로 약속한 8 월중 '왜사'의 도해에 대하여 '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약속의 진위는 잘 모르지만 손문옥 등과의 교섭에서 행하여 진것일가 어쨌든 후지 노부히사는 15 일내에 회답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7 월 4 일 조선정부가 차관의 파견중지를 결정함과 동시에 예조 회답 서계안을 검토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작성된 7 월 자 요시토시 앞 예조 참의 성의문의 서계는 조선 측에 '스스로 먼저 통호할 도리'가 없고 이에야스의 '선치서'(먼저 국서를 보내다)와 '범릉적'(왕릉도굴범)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8 월 신자에몬이 조선에 도래하여 이에야스의 국서가 쓰시마에 도착했다고 알렸다. 그가 지참한 동래부사· 부산검사앞 요시토시 서계에 의하면 금월 24 일(7 월 24 일)에 이에야스 국서가 쓰시마에 도착한 것, '비선'을 보내니 예조에 빨리 상신하여 달라는 것,예조로부터 반서가 오면 인침 토모마사에게 이에야스 국서를 호송하게 한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급전개가 있어서 부산에 체재 중인 전계신· 손문옥· 박대근 등이 17 일에 출항하여 이에야스 국서를 확인하러 향했다. 그리고 하순에 쓰시마 부중에서 요시토시· 시게노부· 겐소 등과 협의하여 이에야스 국서중의 '불손' '위격'을 지적하였다. 요시토시 등은 '개서'의 요구에 반발하면서도 그에 응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한편 조선 정부 내에서는 강화가 '제왕의 대이지도'에 맞는 것으로 일본 측이 두가지 조건에 응하기만 하면 회답은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우세를 점하게 되고, 강화 후 조약체결에 관한 논의도 진행 되었다. 즉 전쟁전까지는 깊은 곳에 있는 왜(쓰시마 외의 지역에 있는 일본인)와의 통교권을 삭감한 것,일본사절의 접대 장소를 한성·부산 두 장소가 아니고 부산에 한정하는 것이 논의 되었다. 후자는 1604 년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9 월 13 일 손문옥으로부터 급보가 한성에 도달하였다. 17 일 조선정부는 토모마사의 래방에 대비하여 응접소를 급히 지을것을 결정하고 이에야스 국서에 대한 반서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10 월 2 일에는 회답사로서 정사· 부사· 종사관에 여우길· 경섬· 정호관이 결정되고 전계시로부터 요시토시가 이에야스의 국서를 고쳐 왔다는 급보가 왔다. 이 때문에 7 일에는 국서 접수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부산에서의 국서 접수는 선례가 없으므로 경관을 접위관으로 파견하게 되었다. 한편 11 일에는 '범릉적'의 '헌포' '국묘'의식을 둘러싼 의견 청취가 진행되었다.

11 월 2 일에 토모마사가 조선에 도래하여 이에야스 국서와 '도왜서계'를 전달함과 동시에 11 월중에 '강화사절'을 파견할 것을 요구하였다.토시마사가 지참한 9 월 7 일자 이에야스 국서에는 '배복'이라는 회신 용어가 있었다. 그에 앞서 이에야스 국서안을 둘러싼 논의에 있어서도 사헌부는 선조로부터 이에야스에게 서를 보내지 않았는데 왜 '배복'을 하여왔는지 의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배복'이라는 문언이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았다. 또 토모마사가 지참한 9 월 26 일자 예조앞 요시토시 서계에는 이에야스가 개서에 응하므로 토모마사에게 시켜서 국서와 '범릉도적' 2 명을 배달할 것, 토모나가(가게나오)가 이에야스에 대하여 '각하보장'(7 월자 예조 참의 성의문 서계)을 '증표'로 '강화 사절'이 올 겨울 바다를 건넌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지연되지 않은것이 '국가의 행운'이라고 하고 있다. 더욱이 동래부사·부산검사 앞 요시토시 서계에서는 "귀국의 신사가 농월 중순에 바다를 건너는 것"은 '행사'이고 "다년간 진심을 다하여 이제 길한 소식을 듣는다"라고 기쁨을 표하고 있다. 그리고 '음서'(도쿠가와 정권 문서)가 도착하였으니 토모나가는 5일에 왕경 '쿄토'에 들어가 18일에 간또(에도)로 향했다는 것, 토모나가는 멀지 않아 쓰시마에 귀도로 도착하니 속히 '신사해람지계'를 취하고 싶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조선정부는 17일 '범릉적' 2명의 사정 청취를 하였는데 그들이 '범릉적'으로 위장되었다는 사실로 출됐다. 21일에는 쓰시마 앞 회답서계안에 성실하지 않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검토되는 한편 이에야스에게 보내는 반서에는 '범릉적'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것이 '제왕대이지도'라고 인식했다. 조선 측은 국서위조와 '범릉적'의 위장을 간파는 하였지만 겉으로는 강화의 명분이 주어졌다. '제왕대이지도'라는 절대적인 논리를 준비한 이상 '이'가 행하는 위계는 어떤 지장도 받지 않는것이였다. 그리고 12월 22일 이에야스와 요시토시에게 보내는 반서안이 검토 되었다.

#### (4) (게이초 12·선조 40·만력 35)

정월 4일에 조선에서는 '회답쇄환사'라는 명칭이 책정되고 2월에 사절 일행은 쓰시마에 도행하였다. 이때 정월자로 이에야스 앞 선조국서, '일본집정' 앞 예조 판서 오역령 서계, 요시토시 앞 예조 참의 성의문 서계, 사이쇼 죠타이 앞 유정서계 등 4통을 지참하고 있다. 성의문 서계에서는 '범릉적' 일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신의'에 따라 용서한다고 한다.

요시토시 등은 사절에 수행하여 윤 4월 에도에 도착하였다. 5월 6일 사절은 에도성에 올라 장군 도쿠가와 히데타다와 면회하고 선조의 국서를 봉정하였다. 이때 봉정된 국서는 요시토시·토모나가 등이 통사 박대근과 결탁하여 개찬한 것으로서 반신 문언의 '봉복'을 '봉서'라고 고치거나 이에야스가 전쟁에 관하여 사죄를 한것 같은 문언이 삭제 되어 있었다 [田代 1983]. 이 개찬 국서는 근년의 조사에 의하여 용지가 죽지와 저지를 붙인 조잡한것이고 문자도 단정한 세자가 아니고 종이에 밖으로 들어난 뭉가 있음을 판명할수 있다 [田代 2007]. 또 집정(혼다 마사노부) 앞 예조 판서 오백령 서계도 개찬 된것이였다 [米谷 1995]. 형식상으로는 완전히 조선 서계의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였는데 외교경험이 적은 도쿠가와 장군은 그것을 위서라고 간파 할수 없었다.

결국 쇼오군 히데타다는 이것을 강화의 성립이라고 보고 국서(반서)를 사절에게 부탁하였다. 또 5월 11일자 오역령 앞 혼다 마사노부 서계에는 히데타다가 "멀리 있는 사람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으로 피로인에 "귀환에 대하여 엄명을 내리므로" 그 '관유지명'에 보답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시토시·토모나가는 5월 2일 자로 예조앞으로 서계를 보내고 사절 일행이 4월 12일에 상락하여 에도에서 히데타다와 면회한 일, 5월 6일 에도를 출발한 일을 속보하고 있다. 그에 맞추어 노부야스는 나가도 재류 중인 피로인 12명을 송환시키고 있는데 피로인 송환에 관한 바쿠후의 명이 쓰시마 이 외의 지역에도 침투하고 있다는것을 어필한 것이다.

6월에도 요시토시·노부시게는 예조 앞으로 서계를 보내고 있는데 '귀 사절은 양국 강화교섭의 증표로서 금후도 꼭 실행할것을 약속하고 있다. 더욱이 쓰시마는 옛날부터 '귀국의 동변'이라고 하면서도 '귀찮지 않은 일'(간단한 일)만 '국왕에게 빙입하는 것'은 이름만 '동변' 일뿐이고 실은 '동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일조 강화의 성립을 조기에 이끌어내기 위하여 표명한 '동번' 언설은 강화 성립 후 이번에는 새로운 조약(무역협정)의 체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언설로 변화 한것이다. 이에 대한 8월 28일자 요시토시 앞 예조 참의 박동설 서계에서는 회답쇄환사의 파견에 따른 '귀도 반행의 로'와 '칸과쿠 접우의 로'를 치하하면서도 '양국화호'는 일본 측의 '성신'에 달렸다고 하며 쓰시마와의 신조약 체결에 대하여 이 단계에서는 회답을 피하고 있다.

## 맺음말

강화교섭에 있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관여와 쓰시마 소씨의 자율성에 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1598년-1600년전반' 이에야스는 도쿠가와 정권의 '다이로'로서 강화에 관여하였는데 정권의 '체면'을 지키기 위하여 조선 사절이 일본에 올 것을 요구하였다. 요시토시는 그 지시를 받고 사절을 요구함과 동시에 쓰시마 기득권익의 부활을 교섭하였다. 한편 조선은 명나라의 완전 철퇴가 진행되는 와중에 남북으로 군사적 대응에 몰려 여진과 쓰시마를 대상으로 하는 기미의 회복에 착수하였다.

'1600년후반-1601년' 도쿠가와 정권이 분열되고 세키가하라의 전투에서 승리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 혼란을 종식 시키고 파권을 확립하여 가는데 강화교섭에 관한 관여정도는 적다. 한편 조선은 '제왕제이지도'라는 강화 명분론을 구축하고 쓰시마에 대한 기미의 재개를 선언한다. 요시토시는 성의의 증표로 삼기 위하여 피로인 송환을 더 추진하게 된다.

'1602년-1603년' 신정권의 수립을 지향하는 이에야스가 강화 교섭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고 요시토시는 도쿠가와 정권을 위하여 '통신사' 초빙을 교섭하고 피로인 송환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조선은 쓰시마에 대한 기미의 일환으로 부산에서의 공무역을 잠정적으로 허가한다.

'1604년-1605년' 조선인 피로인 김광의 증언을 계기로 대일 강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명나라로부터 강화를 간섭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얻어낸다. 그리고 유정을 쓰시마에 파견하여 정례에 없는 사절의 래향에 따른 부산에서의 호시(공무역·사무역)를 잠정적으로 허락한다.

쓰시마 측은 이를 쓰시마-조선간의 강화 성립이라고 인식하고, 유정을 후시미까지 유도하여 이에야스와 면회하게 한다. 유정이 일본에 온 목적은 일본 측의 논리로 바뀌어지고 예조의 서계도 개찬되는 쓰시마의 정보 조작이 개재하고 있었다.

'1606년-1607년' 이에야스는 정식 조선 사절을 초빙하도록 요시토시에게 명한다. 요시토시는 조선 '동번'으로써의 입장을 표명하고 조선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낸다. 조선은 이에야스의 국서와 '범릉적'의 송치를 조건으로 사절 파견에 응한다. 요시토시는 국서를 위조하여 도내 죄인은 '범릉적'으로 위장하여 대응한다. 조선은 위계를 간파하였으나 일단 명분은 샀기 때문에 '제왕제이지도'라는 논리에 의하여 대일 강화를 결정하고 회답쇄환사를 파견한다. 요시토시는 조선 국서를 개찬하는 것으로 이에야스 국서를 위조한 사실을 숨기고 이에야스·히테타다는 강화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조선은 쓰시마에 대하여 기미 재개를 선언한 후 종래의 권익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흐름은 1609년 기유조약 체결로 이어지고 그 이후로도 이어지는데 1604년 부산 호시의 허가가 강화의 성립인것을 조선·쓰시마 쌍방이 인식하고 있었다. 쓰시마 측은 이렇게 제

권익의 부활을 점차적으로 추진하면서 1602년 이후는 도쿠가와 정권의 지시를 받아 '통신사 초빙'에 분주하였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곤란한 모순은 국서위조라는 위계로 뛰어 넘고 조선 측도 '제왕제이지도'라는 논리로 묵인한다. 일조 강화 교섭에 있어서 도쿠가와 정권의 관여는 표면적인 것이고 쓰시마 소씨가 행하는 교섭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고드는 것이 아니었다.

## 参考文献

- 荒木和憲 2008 「対馬宗氏の日朝外交戦術」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編『地球的世界の成立』吉川弘文館)
- 荒木和憲 2017 「粉粧粉青沙器の日本への流入経路に関する一試論」 (『海洋文化財』10)
- 荒野泰典 1998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学出版会)
- 長節子 1997 「一五世紀後半の日朝貿易の形態」 (中村質編『鎖国と国際関係』吉川弘文館)
- 河宇鳳 2002 「国交再開期における松雲大師の活動とその意義」 (仲尾宏・曹永祿 2002)
- 木村拓 2011 「朝鮮王朝世宗による事大・交隣両立の企図」 (『朝鮮学報』221)
- 桂勝範 2008 「壬辰倭乱とヌルハチ」 (鄭杜熙・李璟珣 2008)
- 洪性徳 1995 「壬辰倭亂 직후日本の對朝鮮講和交渉」 (『韓日關係史研究』3)
- 洪性徳 2013 「조선후기 한일외교체제와 대마도의 역할」 (『동북아역사논총』41)
- 鈴木開 2011 「丁応泰の変と朝鮮」 (『朝鮮学報』219)
- 崔承熙 1989 『増補版韓国古文書研究』 (知識産業社)
- 関周一 2002 『中世日朝海域史の研究』 (吉川弘文館)
- 孫承喆 1998 『近世の朝鮮と日本』 (明石書店)
- 高橋公明 1985 「慶長十二年の回答兼刷還使の来日についての一考察」 (『名古屋大学文学部研究論集』92・史学31)
- 田代和生 1983 『書き替えられた国書』 (中央公論社)
- 田代和生 2007 「朝鮮国書原本の所在と科学分析」 (『朝鮮学報』202)
- 田中健夫 1975 『中世対外関係史』 (東京大学出版会)
- 鄭杜熙・李璟珣 (編著) 2008 『壬辰戦争』 (明石書店)
- 徳川義宣 1983 『新修徳川家康文書の研究』 (吉川弘文館)
- 仲尾宏・曹永祿 (編) 2002 『朝鮮義僧将・松雲大師と徳川家康』 (明石書店)
- 中野等 2006 『秀吉の軍令と大陸侵攻』 (吉川弘文館)
- 中野等 2008 『文禄・慶長の役』 (吉川弘文館)
- 中村栄孝 1969 『日鮮関係史の研究』中 (吉川弘文館)
- 貫井正之 2001 『豊臣・徳川時代と朝鮮』 (明石書店)
- 貫井正之 2002 「義僧兵将・外交僧としての松雲大師の活動」 (仲尾宏・曹永祿 2002)
- 関德基 1994 『前近代東アジアのなかの韓日関係』 (早稲田大学出版部)
- 三宅英利 1986 『近世日朝関係史の研究』文献出版

---

米谷均 2002 「松雲大師の来日と朝鮮被虜人の送還について」 (仲尾宏・曹永祿 2002)

米谷均 1995 「近世初期日朝関係における外交文書の偽造と改竄」 (『早稲田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紀要』 41・第4分冊)

李啓煌 1997 『文祿・慶長の役と東アジア』 (臨川書店)

ロナルド・トビ 1990 『近世日本の国家形成と外交』 (創文社)

ロナルド・トビ 2008 『「鎖国」という外交』 (小学館)

(감사의 말)

이 보고는 2017 년도 인간문화연구기구 젊은축과전 프로그램 및 2017 년도 기당 한국연구 기금(재단법인 한일문화교류기금)에 의한 연구성과의 일부임을 밝힌다.